


 <b>국토교통부</b>	<h1>보 도 자 료</h1>		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<b>하나된 열정 하나된 대한민국</b> 
	배포일시	2018. 1. 18.(목) 총 2매(본문2)	
담당 부서	첨단자동차 기술과	담 당 자	• 과장 이재평, 사무관 이기림, 주무관 이동우 • ☎ (044) 201-3852, 3849
보 도 일 시		2018년 1월 19일(금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※ 통신·방송·인터넷은 1. 18.(목) 11:00 이후 보도 가능	

## 17개 기관 자율주행차 30대 주행실적 발표...19만km 무사고 16년 말 대비 7배 이상 증가...올해 말까지 데이터 공유센터 구축키로

- 국토교통부(장관 김현미, 이하 국토부)는 2017년까지 시험·연구 목적으로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율주행차의 주행실적('16 .2.~'17. 12.)을 발표하였다.
  - 국토부는 자율주행차를 연구하는 기관이 자율차를 실제 도로에서 주행해 볼 수 있도록 자율주행차 임시운행허가제도를 도입('16 .2.)한 바 있다.
  - 이에 따라 작년 말까지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17개 기관 총 30대\*의 자율주행차는 약 190,000km를 주행하였다.
    - \* 교통안전공단(2), 기아차(2), 네이버랩스(1), 만도(1), 삼성전자(2), 서울대(4), 쌍용차(1), SK텔레콤(1), 엘지전자(1), 자동차부품연구원(1), KT(1),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(1), 한국과학기술원(1), 한국전자통신연구원(2), 한양대(2), 현대모비스(1), 현대차(6)(가나다 순)
- 2016년 말까지의 주행실적은 약 26,000km(11대)에 불과했으나,
  -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율주행차가 전국을 주행할 수 있도록 개방('16. 11.)하고, 동일한 자율차를 여러 대 신청하거나 추가로 신청하는 경우 절차를 간소화함에 따라
    -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기관도 11대에서 30대로 증가하였으며 주행거리도 7배 이상 증가하였다.

- 2016년 말까지는 자동차 제작사가 전체 주행실적의 대부분 (약 20,000km, 75%)을 차지하였으나, 올해는 현대모비스, LG전자 등 부품·IT업계의 주행실적 비중이 크게 증가(1,600km, 6%→7,000km, 38%)하였다.
  - 자율주행차의 주요 주행지역을 살펴보면 주요 고속도로(경부, 영동고속도로)와 서울·경기지역(여의도, 화성, 의왕 등) 이었다.
    - 이는 주로 제작사·연구소가 화성·의왕에 위치해 있으며, Level3 수준의 자율차를 연습하기 위해 고속도로 구간을 주행하였던 것으로 분석된다.
  - 한편 국토부는 자율주행차 개발기관들이 자율주행기술을 연습할 수 있도록 전용시험장 케이시티(K-City)와 정밀도로지도 구축 등을 지원하고 있다.
    - 지난해 10월 K-City의 고속도로 구간을 완공하여 민간에 우선 개방하고 있으며,
    - 자율주행에 필요한 정밀도로지도도 구축하여 민간에 무료로 제공해 오고 있다.
    - 특히 평창, 여의도와 같이 기관이 요청하는 일부 도로구간은 정밀도로지도를 우선 구축하여 민간이 자유롭게 연구할 수 있도록 지원해오고 있다.
- \* 서울대학교(G80, SM6)는 지난해 여의도를 약 5,600km 시험주행
- 국토부 김채규 자동차관리관은 “국토부는 자율차가 축적한 주행 데이터를 서로 공유할 수 있도록 데이터 공유센터를 올해 말까지 구축하여 연구기관들이 협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”라고 밝혔다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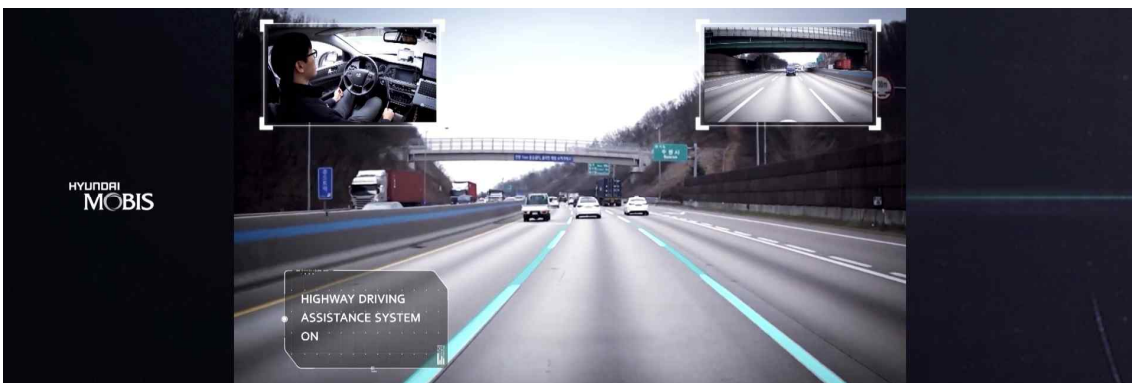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첨단자동차기술과 이기림 사무관(☎ 044-201-3852)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**참고**

**임시운행허가 차량 모습**



▲ 자율주행 중인 모습(현대모비스 제공)



▲ 자율주행 중인 차량의 정면 화면과 실내 운전석 모습(현대모비스 제공)



▲ 자율주행차 외관과 자율주행 중인 실내 운전석 모습(현대자동차 제공)



▲ 자율주행 중인 모습(LG전자 제공)